외도의 주문에 걸려든 '아난'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② 마등가녀의 주문

〈원문〉 "그 때 아난이 탁발을 나가 음실(婬室) 옆을 지나다가 환술(幻術)을 하는 마등가녀(摩登伽女)를 만났다. 마등가녀가 사비가라선범천주(娑毗迦羅先梵天呪)로써 아난을 음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음탕한 몸으로 아난을 어루만지며 파계(破戒)시키려 하였다.

이 때 바사닉왕이 부왕의 기일(忌日)에 재를 베풀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궁궐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다. 궁궐에 가서 공양을 마친 뒤 부처님이 아난이 마등가녀에게 붙들린 것을 알았다. 부처님은 궁중에서 하시려던 설법을 생략하고 서둘러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정수리에서 백보무외광명(百寶無畏光明)을 놓았다. 그 광명 속에서 꽃잎이 천 개나 되는 보배 연꽃이 생기고 그 속에 부처님의 화신(化身)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신주(神呪)를 설하셨다. 그리고 문수사리를 시켜 주(呪)를 가지고 가 아난을 구해오게 하였다. 문수가 음실에 도착하자 마등가녀의 악주(惡呪)가 소멸되고, 아난과 마등가녀를 데리고 부처님 계신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절을 하고 슬피 울면서 자신이 다문(多聞)만 하고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시방여래께서 보리를 이룬 미묘한 사마타(奢摩他)와 삼마(三摩) 선나(禪那)의 최초 방편을 은근히 청하였다."

〈강해〉 경전의 설법이 어떤 동기에서 설해졌는가 하는 것을 교기인연(敎起因緣)이라 한다. 〈능엄경〉의 교기인연(敎起因緣)은 탁발(托鉢)을 나갔던 아난이 돌아오다 마등가녀의 주문에 걸려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비가라선범천주'라는 외도의 주문에 아난이 끌려들어 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비록 외도의 주문이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위력이 있음을 넌지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는 7권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의 위력과 공덕이 수승함을 알게 하는 예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능엄경〉 안에 내재된 밀교적 요소를 은연중에 드러낸 단면이기도 하다. 아난이 음실에 끌려 들어가 사문의 위의를 잃고 파계하게 될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마등가녀는 모녀 두 사람을 말한다. 마등가라는 말은 인도의 천한 신분이었던 매음(賣淫)을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길을 가는 아난을 보고 그 용모에 반한 딸이 어머니에게 아난을 집으로 불러들여달라 떼를 써서 어머니가 사람을 홀리는 주문을 외우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마등가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에서도 나와 있다. 아난은 용모가 수려하여 부처님과 매우 닮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20상을 아난도 갖추었다는 설도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다. 또 친형이 교단에 반역을 꾀했던 데바닷타였다고 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뒤 경전을 결집할 때 아난이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500비구 대중 앞에서 모두 외워내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난을 경가(經家)라고도 한다. 이런 아난이 바사닉왕의 공양 청에 가지 않고 별도의 청을 받아 나갔다가 외도의 주문에 걸려 위험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때 바사닉왕의 청을 받아 궁중에 가계시던 부처님이 급히 절로 돌아와 문수보살을 보내 아난을 속히 데려오게 한다. 부처님 앞으로 돌아온 아난은 자신의 수행이 온전치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던 아난은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제자로 알려져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행의 내공(內功)이 부족하여 외도의 주문에 걸려들었다고 자책을 한 것이다. 문수가 아난을 데려오자 부처님이 아난에게 출가 동기를 묻는다. 이 대목에서 〈능엄경〉 설법의 실마리가 풀린다. 이에 아난이 부처님의 상호가 뛰어남을 보고 출가하였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다시 무엇으로 보았느냐고 묻고 아난은 눈과 마음으로 보았다고 대답한다. 이에 부처님은 눈은 네 얼굴에 있지마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고 묻는다. 여기에서 1권의 대의인 '칠처징심(七處徵心)'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량의삼매' 첫 조건은 12번째 본제관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② 무량의삼매

〈무량의경〉에서는 '무량의삼매'로써 등각도를 이룬다고 하셨다. 무량의삼매란 본성의 간극(寂滅相)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껴안고(大寂靜, 공여래장) 불공여래장과 일체를 이룬 것을 말한다. 무량의삼매는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방편을 통해 성취된다. 두 가지 목적이란 각성의 무명적 습성과 생멸심을 제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편이란 본제관(本際觀)과 자비관(慈悲觀)이다. 본제관을 통해서는 대적정을 증득하고 자비관을 통해서는 대자비를 성취한다. 대적정을 증득하기까지 본제관이 행해지는 절차가 있다.

견성오도 이전의 본제관과 견성오도 이후의 본제관이 그것이다. 견성오도 이전의 본제관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견성오도 이후의 본제관도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견성오도 이전에 행해지는 본제관이다. 머리가 가슴을 내려다본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머릿속의 텅 비워진 감각과 가슴의 편안한 자리가 서로를 비추어본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에 무념주가 세워지고 중심에 이면이 세워져서 서로를 비춰본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에 세워진 무념주의 바탕에서 텅 빈 자리를 인식하고 중심의 이면과 서로를 비춰본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중심의 철벽과 피질 경로에 세워진 무념주가 서로를 마주본다.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피질 경로의 무념주가 중극까지 내려오고 그 바탕에서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인식한다. 그런 다음 철벽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텅 빈 공간과 서로 마주 보게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여섯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 견성오도이다.

머릿골 속에 세워진 여섯 번째 무념처와 가슴 바탕에 세워진 여섯 번째 무심처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한다. 그런 다음 무념 무심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갖추어진 본성이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불응 색,성,향,미,촉,법(不應 色,聲,香,味,觸,法)하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以生其心)한다. 이 과정이 금강해탈도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본성의 틈을 벌려 무념 무심 간극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간극에 머물러서 밝은 성품의 기쁨을 인식한다. 이때가 본각이 성취된 때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를 줄 알면 조사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초입반야의 과정이다. 여덟 번째 단계의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끌어안는다. 그런 다음 그 상태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바로 멸진정이다. 아홉 번째 본제관이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이 과정을 증득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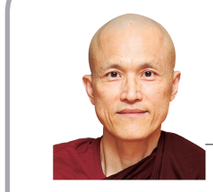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마주 보게 하고 밝은 성품의 기쁨을 누린다.

그런 다음 간극으로 법신행을 하고 무념으로 보신행을 하며 무심으로 화신행을 한다. 이 상태가 보살도의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혜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혜지의 과정이다. 열번째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밝은 성품을 무한하게 확장시킨다. 밝은 성품이 생멸문 전체를 감싸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생멸문을 관조한다. 이 과정이 보살도 법운지의 과정이다. 열한 번째 본제관이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무심을 껴안고 밝은 성품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오로지 본성의 적멸상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대적정의 상태이다. 열두 번째 본제관이다. 열두 번째 본제관에 들어가면 무량의삼매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② 질문의 어리석음(下)

마음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뵙고 밖으로 나가려하니 바깥이 어두워 용담 스님께 "바깥이 깜깜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용담 스님은 촛불을 건네주다 덕산 스님이 받으려 할 때, 촛불을 꺼버렸다. 그때 덕산 스님은 계합했다. 덕산 스님은 화두를 들지 않았는데 무엇을 타파한 것이 있어 용담 스님에게 절을 한 것인가? 수행자들은 깊이 있게 참구해보아야 한다.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일관성 없게, 아만과 교만으로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보라.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줄 알고 했던 말들이 하루아침에 부질없이 사라질 일장춘몽 같은 어리석음인 줄 알아야 한다. 덕산 스님의 화두는 찰나에 들고 찰나에 버려졌다. "바깥이 깜깜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화두가 어디 있었겠는가. '촛불을 꺼버렸다.' 용담 스님이 무언의 답으로 덕산 스님의 알을 깨버렸다.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다.

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놓은 말씀의 내용에서 틀린 것은 없지만 본인들의 의심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수행자에게 의심에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이 의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별심이 화두의 의문이지만 그 것이 실답게 들리지 않을 뿐이다. 그 중에 가장 실답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화두가 된다. 그 다음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는 달마 스님께서 가장 잘 말씀해놓으셨다.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마음 안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일으킨 마음이 경계에 나타난 분별심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 허망한 분별심이 오랜 세월 미혹으로 살아온 사대오온임이 분명해지면, 그 사대오온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를 더 이상 사량분별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미혹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 미혹에 대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없어진 마음이 스스로다. 여기까지 듣고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자신의 '행주좌와어묵동정'에 화두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와 닿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움직이면 사실 그대로이지만,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화두가 된다.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을 보자. 농부는 겨울이 오면, 내년 가을에 수확해야 할 과일을 염두에 두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의 수를 조절해야 하고, 병충해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농부의 일이다. 여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가지는 두고 어떤 가지는 제거해야 하고, 열매의 품질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꽃은 두고 어떤 꽃은 제거하고,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해충을 막아야 한다. 이때 그 골라내는 마음이 무슨 마음에서 나온 마음인지를 가만히 보는 일이 화두이고, 그것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 의정이다.

오온의 분별심에서 끊어짐 없이 의정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오롯이 저절로 들리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의심처이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오온과 무관하게 화두는 들려있고, 동정(動靜)에 상관없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때부터 오온을 여읜 가벼움이 생겨나고 화두는 화두대로, 오온은 오온대로, 서로 부딪치는 것이 줄어든다. 각자의 일이 다름을 받아들이니 소리와 형상에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잦아들게 된다. 이때가 되면 거의 다다른 것 같지만 아직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엇'으로서 걸어온 길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마저 버려져야 다시는 모양과 소리로는 말함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